

폭염·악취 다 잡는다... 농촌진흥청, 'AI·스마트 축산 기술' 현장 점검

- 11일,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 전북 정읍 시범 농가 현장 찾아
- 냉각 패드·탈취탑·인공지능 활용 어미돼지 체형 진단 기술 시범 사업 결합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8월 11일 전북 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하늘농장(대표 송영철)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고, 돼지우리 냉방설비와 냄새 저감 시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미돼지(모돈) 정밀 영양 기술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고온이 이어지면 돼지는 사료 먹는 양과 증체량이 줄고, 어미돼지의 번식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꾸준히 상태를 살피며, 돼지우리마다 환기 상태에 따라 냉방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용민 원장이 찾은 이 농가는 분만사에 에어컨을, 임신사와 육성·비육사에는 냉각 패드를 깔아 돼지우리 내부 온도를 관리하고 있었다. 돼지우리 지붕에는 우레탄 폼을 코팅해 단열 성능과 냉방 효율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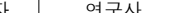
또한, ‘돼지우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냄새 측정 센서와 개별형 탈취탑의 운영 상황도 살폈다. 탈취탑은 축사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물로 세정해 냄새 물질의 확산을 줄이는 시설이다.

조 원장은 냉방시설 관리 상태 점검과 현장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다양한 농가 의견을 듣고, 시설 운영에 따른 냄새 저감 체감 효과와 관리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농가는 2025년부터 ‘어미돼지 체형 영상 진단 AI 기반 정밀영양 공급 기술’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3차원 카메라로 어미돼지의 체형을 측정 한 뒤 체형지수에 따라 개체별로 영양·사료를 공급하는 기술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고온기 냉방시설을 적절히 운영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돼지의 건강과 생산성을 지키는 기본이다.”라며, “환기량이 늘어 냄새가 확산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효과적인 냉방설비와 냄새 저감 시설 운영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폭염 대응 양돈농가 현장 방문 계획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장길원 (063-238-7400)
		담당자	연구사	황옥화 (063-238-7408)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방문개요

- 일 자: 2026. 8. 11.(화) 10:00~10:40
- 장 소: 하늘농장(대표 송영철), 환경과·양돈과 시범사업 참여 농가
- 참석자: 원장, 전략팀장, 담당 연구사, 농장주 등
- 내 용
 - 폭염 대응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한 돼지우리관리 현황 및 현장 의견 수렴
 - 냄새 모니터링과 저감 시설(탈취탑) 패키지 설치(환경과) 및 운영 현황 점검
 - 모든 체형지수 기반 개체별 영양·사료 공급 기술(양돈과) 활용 효과 청취

방문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40	40분	◦ 폭염 대응 현장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 점검 - 돼지우리 냉방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공유 - 냄새 모니터링과 저감시설 운영 현황 점검 - 모든 체형지수 기반 정밀영양 기술 활용효과 청취	황옥화 연구사